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3

▶ 24회 예고
아쇼까 진압군은 바라나시를 거쳐 꼬삼비에 도착한다. 꼬삼비는 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빈두사라가 파견한 대신이 다스리고 있는 옛 왐사국이었다. 아쇼까는 꼬삼비성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평생의 스승이 될 우빠굽따를 만난다.



# 아쇼까, 너의 운명은 칼이다

대신들이 이발하는 날이었다. 칼라따까 대신은 이발하러 궁중이발소로 갔다. 칼라따까가 궁중정원을 지나 궁중이발소가 있는 회랑으로 막 올라설 때였다. 아쇼까의 말먹이꾼이 달려왔다. 아쇼까가 탁실라에 가 있을 때만 해도 칼라따까에게 배속된 군관 출신의 늙은 말먹이꾼이었다.

"왕자님은 잘 계시느냐?"

"왕자님께서는 빠딸리뿌뜨라를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부인과 아들은 물론 저까지 함께 떠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잘된 일이구나."

"저같이 늙은 말먹이꾼이 왕자님을 따라다니기에는 오히려 짐이 될 것입니다."

칼라따까는 아쇼까의 심란한 마음을 이해했다. 빠딸리뿌뜨라성의 브라흐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었다. 늙은 말먹이꾼이 다시 말했다.

"다만, 왕자님께서는 떠나고 싶어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르마 왕비님께서 왕손을 잉태하고 계시어 차마 떠난다는 말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지. 왕자님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왕비님이 꾸날라를 보살펴 주셨으니 이번에는 아상디밋따 부인께서 수발을 들어주어야 도리이지."

칼라따까는 말먹이꾼을 보낸 뒤 궁중이발소로 들어갔다. 마침 대신들이 이발하는 날이었으므로 칼라따까는 바로 이발의자에 앉았다. 칼라따까는 머리숱이 적은 편이었다. 나이 들자 머리카락이 차츰 빠지면서 이제는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였다. 칼라따까는 가위를 쥔 수드라에게 가능한 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면도만 하도록 지시했다.

그때 내성 밖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는 코끼리와 말들이 날카로운 괴성을 질러댔다. 빈두사라왕이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 군사들을 훈련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의 군대는 4군으로 편성돼 있었다. 코끼리부대, 기마부대, 전차부대, 보병부대 등이 그것이었다. 이발을 마친 칼라따까는 다르마 왕비에게 반승낙을 받았으므로 빈두사라가 집무를 보는 궁으로 갔다.

칼라따까의 훤칠한 모습에 궁녀들이 수군거렸다. 콧수염만 놔둔 채 구레나룻수염을 밀어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칼라따까를 본 빈두사라가 웃었다.

"제관의 동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속겠소. 하하하."

"구레나룻수염만 없앴는데 그렇게 보이옵니까? 기분이 좋아서 밀어버렸사옵니다."

"기분 좋다니 무슨 일이오?"

"대왕님께서 저에게 지시한 일이옵니다."

"말해 보시오."

"다르마 왕비님께서 반승낙했사옵니다."

"아쇼까를 웃자인으로 보낼 수 있겠소?"

"왕자님을 설득해 본다고 하셨으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사옵니다."

빈두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라따까를 바라보았다. 제관을 오랫동안 맡아온 칼라따까는 빈두사라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신이었다. 빈두사라에게는 이와 입술 같은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아쇼까가 왕비의 말을 들을 것 같소?"

"대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왕자님은 선뜻 웃자인으로 가겠다고 할 것이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오?"

칼라따까는 늙은 말먹이꾼에게 들은 대로 보고했다.

"왕자님은 빠딸리뿌뜨라를 떠나고 싶어 하옵니다.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떠나고 싶어 하옵니다."

"사실이오?"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말먹이꾼이 지금은 왕자님 말먹이꾼으로 가 있는데, 그 늙은 말먹이꾼이 제게 한 말이옵니다."

"그렇다면 아쇼까가 왜 내게 직접 찾아와 말하지 않는 것이오? 나는 한시가 급해서 언제라도 출병할 수 있게끔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소.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아쇼까만 보지 못했단 말이오? 나는 반란이 일어난 웃자인만 생각하면 집무실에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소."

"아마도 왕비님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지 못했던 것 같사옵니다."

"왕비가 반승낙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왕비 때문에 그런단 말이오."

"왕비님께서 왕손을 잉태하셨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왕비님께서는 꾸날라를 키우셨지요. 그런데 그런 왕비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찌 쉽게 떠날 수 있겠사옵니까?"

"그야 아상디밋따가 왕비 산후조리를 하면 될 것이오. 다행히 꾸날라는 아상디밋따를 아주 잘 따르고 있소."

"대왕님이시여,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사옵니다. 다만 다르마 왕비님께서는 아쇼까 왕자님이 빠딸리뿌뜨라를 떠난다고 해도 이해하실 것만은 분명하옵니다."

빈두사라는 잠시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탁탁 때렸다. 그러면서 칼라따까가 한 말을 정리해 보았다. 아쇼까는 가족과 함께 빠딸리뿌뜨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머니 다르마 왕비가 동생을 잉태하고 있으므로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다. 첫 부인이 낳은 갓난아기 꾸날라를 키워주었는데, 자신이 가족과 함께 떠난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마는 아쇼까가 떠나는 것을 반승낙한 상태이다. 왜 그럴까? 빈두사라는 눈을 뜨면서 칼라따까에게 물었다.

"제관이여, 다르마 왕비는 위험한 반란지역으로 아들이 떠나는데도 어찌하여 반승낙했다는 것이오?"

"라따나 왕자님 독살 미수사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사옵니다. 대왕님께서 총애하는 왕자님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벌써 두 번째 아니옵니까?"

"빠딸리뿌뜨라성 안보다 성 밖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군."

"실제로 그렇사옵니다."

빈두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총애한 왕자는 수시마와 라따나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결코 아쇼까를 좋아했던 적은 없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모든 면에서 능력은 출중하지만 고집이 세고 잔인했다.

그래도 빈두사라를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 있었다. 비록 이복형제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수시마와 아쇼까는 우애가 좋았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가 집무실을 나간 뒤 우두머리전령을 불러 지시했다.

"아쇼까를 입궐시키라."

"예, 대왕님."

그러나 빈두사라는 웃자인만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져 아쇼까를 집무실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신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집무실에 앉아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다.

"아쇼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빈두사라는 우두머리전령을 내보냈다. 우두머리전령은 즉시 친위대 군사를 풀어 아쇼까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명했다. 날씨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가는 때였으므로 쾌청했다. 강가강 강물은 우기를 거치는 동안 불어난 수량으로 파도치듯 부드럽게 넘실댔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들판에는 곡식들이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사탕수수밭과 목화밭, 유채밭에는 수시로 먹이를 찾는 새떼들이 출몰했다.

친위대 군사들은 아쇼까의 소재를 금세 알아냈다. 우두머리전령이 빈두사라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은 다르마 왕비님 별궁 후원에 계시옵니다."

"알았다. 바로 갈 것이니라."

우두머리전령의 보고대로 아쇼까는 별궁 후원에서 아내 아상디밋따와 함께 꾸날라의 재롱을 보면서 오후 한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살이 된 꾸날라는 혼자서 호르륵 호르륵 웅얼거렸는데, 마치 강가강에 사는 아름다운 물총새 소리 같았다. 우두머리전령이 먼저 달려가 빈두사라가 오고 있음을 아쇼까에게 알렸다. 아쇼까는 빈두사라를 맞이하기 위해 후원 초입까지 잰걸음으로 나갔고, 아상디밋따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르게 했다. 그런 뒤 꾸날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었다.

아쇼까가 빈두사라를 후원으로 안내했다. 아쇼까 별궁은 예전에 군관들이 사용하던 숙소로서 초라했지만 후원은 그런대로 넓었다. 빈두사라는 꾸날라를 한번 껴안더니 아쇼까에게 말했다.

"아쇼까야, 나는 너를 기다릴 만큼 지금 여유가 없다."

아쇼까가 눈치를 하자, 아상디밋따는 꾸날라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주었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웃자인에 반란이 일어났다."

"파견한 신하들 목숨이 어찌 됐는지 궁금하옵니다."

"다른 소국까지 동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아쇼까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마우리아왕국을 위하는 일이라면 떠나겠사옵니다. 다만."

"네 어머니 때문이냐?"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옵니다. 동생이 태어날 것이기에 그렇사옵니다."

"하하하."

빈두사라가 크게 웃었다. 그러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다.

"네 어머니는 너를 이해한다고 했다. 네 어머니를 위한다면 아상디밋따가 빠딸리뿌뜨라에 남아서 돌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족과 함께 떠나려고만 했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사옵니다. 아상디밋따는 어머니를 잘 돌볼 것이옵니다."

"아쇼까야, 너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너는 용감한 내 아들이 분명해."

빈두사라는 아쇼까의 의중을 확인하고는 궁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쇼까는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았다. 빈두사라에게 웃자인으로 떠난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허탈해져 견딜 수 없었다. 서북쪽 변방의 탁실라로 떠났듯이 이번에는 남쪽 변방의 웃자인으로 가야 할 운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에 엉거주춤 앉은 채로 상념에 잠겼다.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서쪽 하늘에 화톳불 같은 놀이 붉게 타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이 문득 보였다. 아쇼까는 가죽칼집에 든 칼을 빼어 허공에 금을 긋듯 휘둘렀다. 그러자 허공에서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아쇼까야, 너의 운명은 칼이다!' 라는 소리가 무겁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런 외침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밝게 스치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쇼까는 혼잣말로 소리쳤다.

"그래, 반란이 일어난 웃자인으로 떠나자!"

그제야 아상디밋따가 아쇼까의 기묘한 행동을 보고 있다가 다가왔다. 아상디밋따는 이미 각오한 듯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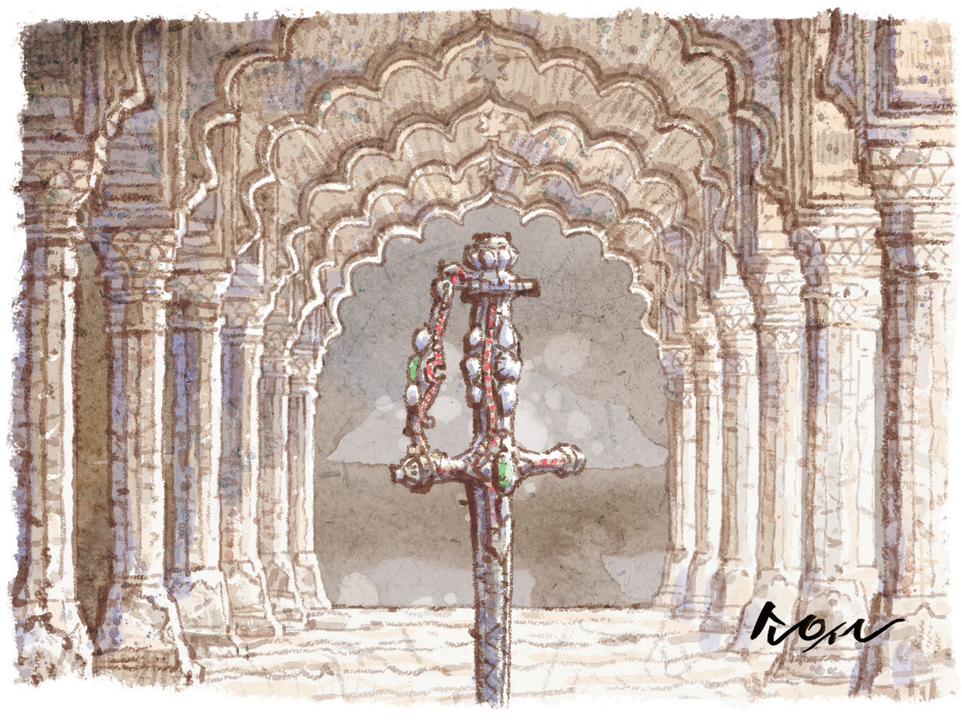
"걱정하지 마세요. 꾸날라를 잘 키우고 있을 게요."

"저는 결혼할 때 인드라신께 맹세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의 발걸음을 편하게 해드릴 것이라고요."

"고맙소, 아상디밋따. 당신은 하늘에서 보낸 천녀와 같소."

"어머님 산후 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왜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새 저녁놀이 스러지고 땅거미가 졌다. 아쇼까는 자신도 모르게 아상디밋따를 껴안았다. 한동안 아쇼까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상디밋따도 소리 내어 흐느꼈다. 그러나 아쇼까는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진압군을 거느리고 웃자인으로 떠날 것이라며 이를 악물었다. 〈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